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님을 의심하는 토마 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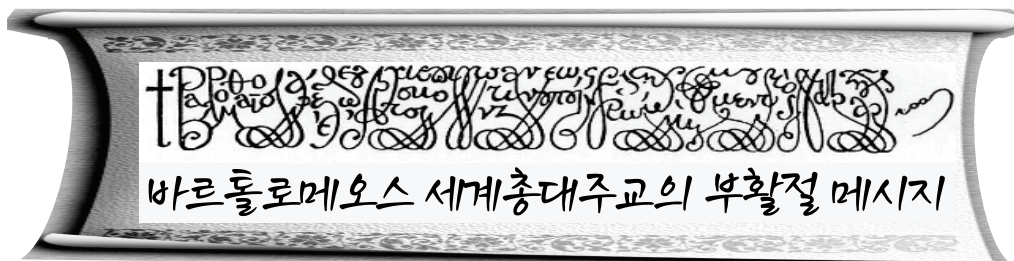
부활 후 제2주일 / 토마 주일

성 이리니 대순교자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스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오늘 구원이' 대신 토마 주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4, 171
- 제 1, 2, 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성 토마 사도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4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5, 12-20 / 250, 봉독서 34
- 복음경 : 요한 20, 19-31 / 97, B 14
- 그 밖의 성가와 성모송, 영성체송은 부활절 기간과 같음.
- '우리가 참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주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
녀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거룩한 대사순절
의 경주를 달려왔고, 하느님 그리스도의 구
원을 주는 수난에 도달했으며, 마침내 오늘
그분의 찬란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정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을 규정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부활 대축일
과 부활 축일 기간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
지는 않습니다. 매 주일과 평일의 모든 성찬
예배에서도 이 빛나는 부활을 경축합니다. 모
든 차원에서, 다시 말해 거룩한 예배뿐만 아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니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증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기대로 약속합니다.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늘 죽음을 직면하며, 이 죽음의 공포와 불가피성은 혼자서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삶이 “죽음을 향한 여정”이요 그것을 피할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어떤 경우에도 삶의 인간화 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성과 관심의 증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 죽음 때문에 인류는 움츠러들고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외면한 채, 아무 제약도 없는 자기 실현의 거짓 담론과 “내일이면 죽게 될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비루한 쾌락주의 속에서 냉소주의와 허무주의와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과학, 사회 정치적인 활동, 경제적 발전과 번영은 이 총체적 난국에 탈출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은 무엇이든 죽음의 오명을 담고 있고, 그것 자체가 또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결코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영원을 향한 열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감추어질 수 없으며, 생명의 연장이 나 거짓 낙원의 약속으로 충족될 수도 없습니다.

정교회는 현대의 합리적 인간에게 부활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교인들에게 빠스까는 단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도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의 종말론적 성취를 미리 맛보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실

한 그리스도인은 충만한 실존이야말로 하느님 은총의 선물임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변모되고, 하느님과 같아지는 신화를 향한 여행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로에게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I 데살로니카 4:13)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살아있는 존재”(요한복서 1:18)이신 그리스도께 희망을 둡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구원의 현존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늘 왕국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힘으로 기능하고 실현됩니다. 현대 문명이 인간을 역사의 창조자로 평가하고 확립하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동역자”(1 고린토 3:9)라 불렸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교회가 내향적이어서 비세상적이고 역사와 문명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교회의 자기인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이고 박애적인 과업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존경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빠스까는 단지 정교회의 가장 위대한 축일이요 경축 행사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 전체요, 우리의 교회적 삶의 전부이며, 정교회의 문화 전체입니다. 이 고갈되지 않는 샘은 우리 정교회의 종말론적 삶과 증언의 원천이고 양분입니다. 부활 안에서 또 부활로부터,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알게 되고, 세상 속에서 이뤄야 할 우리의 소명과 사역의 내용과 방향을 분별하며, 우리의 자유가 지니는 참된 의미와

☞ 3면으로 계속

지혜의 말

배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물 때문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배는 자기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물 때문에 가라앉는다.

마찬가지로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이 당신의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와 당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라. 대신에
당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려라.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희망
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당신은 지옥에서 온갖 다른 종류의 소위 '선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자선가, 수도자, 성직자, 금욕가, 동정녀...
그러나 지옥에는 겸손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낙
원 안에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진리를 발견합니다.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분은 지옥의 문과 죽음의 권세
를 멸하시고 인류와 온 피조 세계의 해방자
로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자
유가 토대이고 길이요 종착지인 “신화의 공
동체” 즉 교회와 연합됨으로써, 바로 이 자
유라는 선물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초대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인 이 자유
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페소
서 4:15)으로, 또한 친교와 연대의 사건으로
경험되고 표현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
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
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욕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5:13)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끝
없이 지속될 하느님 왕국의 날에 있을 “공동
의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길 위의 있습
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는,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
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
느님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
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
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
요 구속자시며 모든 은총의 선물을 베푸시
는 주님께, 그분의 구원을 주는 부활의 빛으
로 우리 삶 전체를 비춰주시길, 우리 모두에
게 기쁨의 충만과 구원의 모든 선물을 베풀
어주시길, 그리하여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
고 하늘보다 높은 이름이 온 땅에서 찬미되
고 찬양받으시길 간구하면서, 기쁨에 찬 부
활의 인사를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하셨습니다!”

2019년 부활절

여러분 모두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뜨겁게 중보의 간구를 드리며
†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의
세계총대주교

소 식

대교구

■ 부활 축일

올해도 축일 중에 축일인 부활절 축일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풍성한 기쁨 속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모든 성당에서는 주님의 부활의 빛을 밝히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의 정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의 빛을 받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사랑의 대만과 때는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봉독되고, 사랑의 오찬 때는 모두 기뻐하며 함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부활의 참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빛과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모든 성직자들은 정교회의 가장 큰 축일인 부활절을 우리 모두가 뜻깊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 달걀,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청소, 주변 정리 등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축일과 관련한 자료는 정교회 한국대교구 홈페이지 www.orthodox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 수업

올해도 소준 야누디스 교수의 지도로 성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5월 20일(월) ~ 6월

22일(토)까지, 매주 월~토요일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6월 23일 주일에 성화 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화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5월 10일(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 02 362 700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DMZ 평화 손잡기

지난 4월 27일(토)에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누리길 500km』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民 + 평화 손잡기’ — 손에 손 잡고 — 행사에 정교회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를 비롯하여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신자들 약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교회는 파주 지역으로 가서 강화에서 고성까지 500Km의 평화인간띠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한반도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손을 잡는 순간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5월 8일(수)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